

새 아침 지상 법석

“남을 즐겁게 하는 새 삶을 시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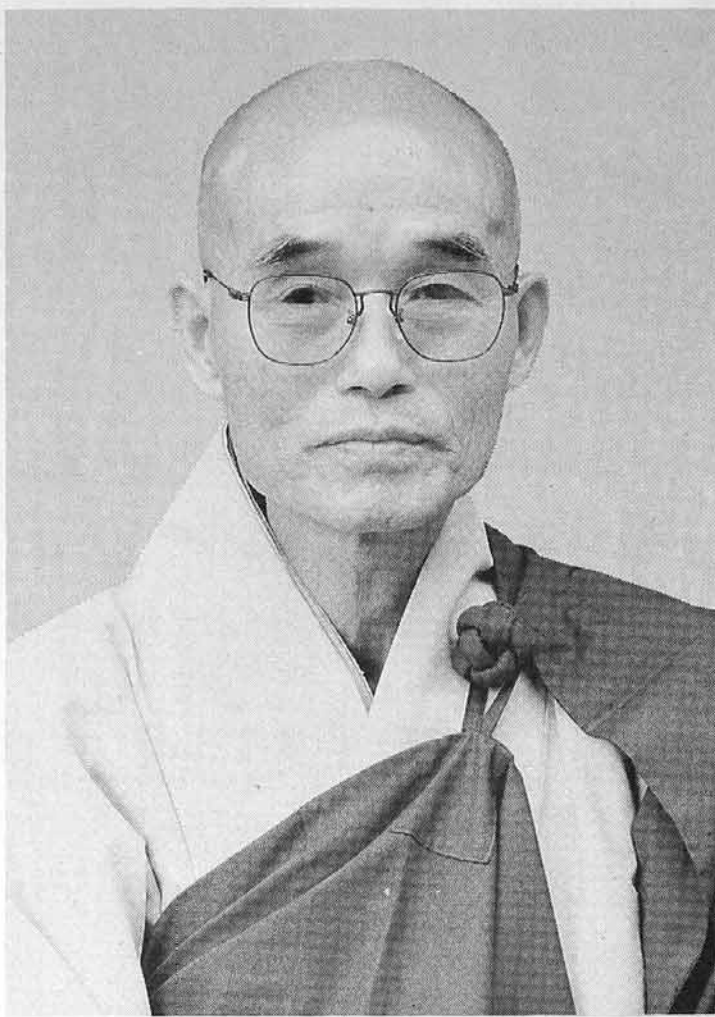
새해를 맞이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평소와 다를게 뭐 있겠습니까? 인간 사는 것이 다 똑같지요. 알고보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이 다반데 있지 않아요. 너한테 있는 것도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우리 마음을 모르는데 있어요. 우리 마음만 알면 무엇이든 잘 됩니다. 안으로 밖으로 안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걱정 근심 재앙이 자꾸 생기지요. 개인이 나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죠. 국가의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죄만 짓고 할 일도 못하고 살았으니 올해는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달라짐이 있어야 새해를 맞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항상 살던 대로 살면 나이 먹은 값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첫째로 자기 직장에 사명감을 갖고 충실하고 둘째는 남을 위해서 단결, 화합해 남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고 셋째는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다 지상낙원, 인간 극락세계가 되

새해에는 첫째로 자기 직장에 사명감을 갖고 충실하고 둘째는 남을 위해서 단결, 화합해 남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고 셋째는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다 지상낙원, 인간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할뜬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팔공이 거세게 불어닥친다 해도 여기에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본성을 바로 깨쳐서 망명이 다 떨어지고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해서 일체제(一切處)에 무심이 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설사 걸보기에는 범부같이 보이지만 구경각(究竟覺)을 성취한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범부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팔세용녀가 성불하듯이 남자는 여자는 축생이든 무엇이든간에 무생법인을 증득하면 모두 부처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보살계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살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계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는 등의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상(名相)에 의지해서 계를 받거나 말 몇 마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眞如自性)을 받아서 자성을 바로 깨친 것 같으면 이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들은 이런 법문을 많이 듣고 바로 실천하여서 공부를 성취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고 말로만 듣고 갖다 씹어먹고 버린다면 도리어 듣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니 화두를 부지런히 들어 하루빨리 깨달아 일이없는 도인이

어떤 것이 참 나인가, 내가 누구냐?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 세상 돌아온 세상 어떤 것이 나인가 말이요. 번뇌망상이 없는 청정한 물건이 본래 나일세. 작은 생각, 옳은 생각, 그른 생각 이런 생각은 내가 아니요. 참으로 나라는 것은 한 생각,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전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눈감짝할 사이라도 나를 찾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보람있는 삶인 것

세월을 아끼자

입니다. 돈벌어서 재산을 쌓고, 벼슬을 해서 존경을 받으려 하고 그런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가 있느냐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안배해서 그렇지만 한테 대접받는 것도 괴롭해요. 대접받지 않을 때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낯잡을 자든 어디까지 핑퐁든 누가 시비하겠어요. 대접받으려면 웃도 맘대로 웃고 다지고 신발도 아무거나 못신어요. 세상 일은 따지고 보면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 부러워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몰라서 그렇지 꽃피고 일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진리도 하나입니다. 사람만 이렇게 많지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네 맘 다르고 내 맘 다르고 하지 않아요. 몸뚱이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꽃피고 일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해와 달이 뜨고 저도 가고 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 오기도 전에 죽어서 화장터에서 타버리기도 하고 땅에 묻히기도 해 이 세상에서 없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없어져 버렸습니까? 원래 육신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허공의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육신을 부려먹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지 않아요? 나, 이 나란 것은 죽지 않아요.

반야심경 법문같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더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주인공은 변하지 않는 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 주인은 걱정, 근심하는 물건도 아니고 잘 되고 안될 일도 없고 그것이 바로 성불이고 자유로 또 해탈입니다. 일체의 구속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해탈이요. 번뇌, 망상을 나무껍데기처럼 벗어버려야 해요. 우리가 번뇌 망상 벗어버리려고 공부하는것 아닙니까?

혜암 스님

<해인사 방장>

대형사고가 급년에 얼마나 많이 났어요. 알 수 없는 일은 세상사이고 뜻대로 안되는 것도 세상사인데 무얼 어떻게 잘 되길 바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직장에 대해 충실하고 집안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단체의 단결, 화합만 되면 나라도 단체도 집안도 개인도 모두 잘해요.

새해를 맞는 마음

개인도 눈 코 귀 입이 화합만 되면 탈이 안나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욕심을 부려서 병도 나고 근심도 생기는 것이지 화합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이 잘 됩니다.

나라 일이나 하늘 땅 일이나 우리 몸뚱이 다 똑같아요.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다 잘 합니다.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가르치고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몸뚱이가 하늘이고 땅입니다. 단결 화합하고 어디가든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다른 사람 애먹이지 말고,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로운 짓을 휘하려고 합니까. 짧은 시간에 남도 도우면서 멋있게 살지, 우리가 얼마 산다고 남을 해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단결, 화합하고 즐겁게 삽시다. 남 즐겁게 해서 내가 손해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가는데 마다 그런 생각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도록 그 법을 어기지 말고 합리적으로 삽시다. 이 몸뚱이를 이치에 맞도록 안배 해주니 배탈도 나고 병도 들고 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해 작년에는 되는데로 살았지만 급년에는 아주 정신을 차려서 남을 기쁘게 도와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새해를 맞이할 때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하고 달리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禪)과 정(定)을 얘기하곤 합니다. 어떤 것을 禪(선)이라 하며 어떤 것을 定(정)이라 합니까. 망명이 일어나지 아니함이 선이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입니다. 본성이란 무생심(無生心)이요, 정이란 경계를 대함에 무심하여 팔공(八風)에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팔공이란 이로움과 손실 험뜬음과 좋은 평판 칭찬함과 비난함 괴로움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정(定)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겠으니 이와같이 얻은 사람을 해탈했다고 하며 또 피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육도(六度)를 뛰어넘고 삼계(三界)를 벗어난 대력보살(大力菩薩)이며 무량역년(無量億年)이 내장

부인 것입니다. 망명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분별육식(分別六識)뿐만 아니라 제팔아뢰야식의 미세망념(微細妄念)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팔식은 끊어졌으나 제팔아뢰야식이 남아 있으면 선이 아닙니다. 미세망념이 모두 끊어지면 망명의 구름이 걷히고 진여자성인 지혜의 해가 드러나서 자기 본성을 보지 않음에야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돈오(頓

悟)이며 해탈이며 성불입니다.

해와 달이 뜨고 저도

본성이란 제팔아뢰야식의 무기심(無記心)의 무생심(無生心)이 아니고 제팔아뢰야식의 무기심의 무명(無明)까지 완전히 끊어진 진여본성이 본래의 구경 무생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며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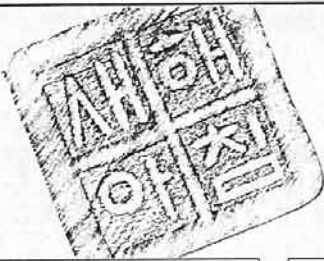
망상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 무생심이며 본성이므로 표현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定)이란 모든 경계를 대할 때 무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망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진여본성이 드러나서 대무심지(大無心地)가 현전하여 행왕좌와(行往坐臥)와 어묵동정(語默動靜)뿐만 아니라 자나 깨나 미래잡이 다하도록 경계에 변화가 없습시다.

됩니다. 삼세고금수시전(三世古今誰是親)가 달연일물본래진(湛然一物本來眞)이라. 개화낙엽근유일(開花落葉根惟一)이요 일월거래절영환(日月去來絕往還)이로다.

삼세고금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청정한 한 물건이 본래 나일세. 꽃피고 일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해와 달이 뜨고 저도 가고 옴이 없도다.

자기일 잘하는 사람이 남의 일도 잘 돌봐 신용은 돈보다 큰 재산... 건강은 더 소중

1995



이 기쁜 오늘,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학교법인승가대학
중 앙 승 가 대학

이사장 탄성스님	학 장 송산스님
이 사 석주스님	교학처장 종석스님
송산스님	총무처장 정인스님
종하스님	기획실장 금정스님
설조스님	불교학과장 태원스님
지하스님	사회복지학과장 보각스님
현근스님	도서관장 종범스님
지선스님	비구수행관장 해남스님
명훈스님	비구니수행관장 본각스님
서돈각	신문사주간 성본스님
주영운	불전국역연구원장 해남스님
박원일	불교사학연구소장 홍선스님
홍윤식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 이경호 교수
엄종일	보육교사교육원장 홍선스님

감 사 선결스님, 범산스님, 무상스님
사무처장 수환스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 925-5507-9

학교 법인 동국 학원
학교 법인 동국 학원

이사장 **吳 緣 園**

동 국 대 학 교

총 장 **민병천**

삼학불교대학

학장 **손혜인**

불교유아교육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불교미술과
불교학과 학생일동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511-1080
511-2026~8
FAX 511-1080

동대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
신년 조례회

귀의 삼보하옵고
동림동문회원 여러분 올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상호간에 신년 친목을 결한 모임을
갖고져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동참바랍니다.

일시: 불기 2539년 양 1월 11일 수요일
시간: 오후 3시
장소: 회기동 경희의료원 뒤 연화사
연락사무소전화: 02-462-1335 / FAX 462-1339
납장사 0582-34-6331
모임장소: 연화사 02-964-6167, 962-6186

각기 회장 국장 총무부장
회장 **이성웅** 합장